

2016 년 10 월 23 일 찾아오신 예수님(10) “거룩하신 자”(요 6:60-71)

<도입>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문이 생기고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폴 탈리히라는 ‘인간은 묻는다, 그리고 신학은 답변한다’라는 명제의 틀 안에서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 했습니다. 묻지 않고 믿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하는 사람에겐 질문과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맹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끝내 답을 들음으로써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드러지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모두...

[1]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 온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은 크게 두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51 절) 또 하나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57 절). 주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첫 번째는 62 절,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더 어려운 말씀인데 당신이 하늘로서 온 떡임을 아는 것은 그것의 기초가 되어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63 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적 차원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들어가 머물며 역사할 때, 영으로(말씀으로)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 모두 떠났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à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8-69 절)

‘베드로(제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와 혼동과 여러 질문들 끝에 자신의 내면에 답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남은 자의 고백이 드러지기까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분과의 많은 경험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 결과 자신만의 농축된 언어로 고백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본 예수님>

표적 기사들은 어떤 조작에 의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평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리라고 상상치 못했습니다. 갈릴로 향한 들판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의 아들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5 병 2 어로 모두 배불리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부들이 하는 일은 늘상 파도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날 밤도 폭풍을 만나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생소함이 느껴지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예수님>

성전 상점들을 뒤집어 엮으시면서 성전을 헐라, 내가 3 일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알만 하면 모르겠고, 생소하고 어색하니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사건마다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참으로 대체 이분은 함께 할수록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아진 게 뭐야? 이러다가 우리 신세 망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생각들과 싸우는 중에, 어느 순간 비범한 이 분은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의 고백이 증명합니다. 고백은 열떨결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 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생의 말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시다!’ (1장부터 진술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이 사건은 베드로라는 단지 연약한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의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신앙 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지닌 사람은 작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로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맺음>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담겼다는 말은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인생의 꽃 피울 가치 있는 소명의 열매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각각의 입술로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내적 외적 상황들을 거쳐왔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라도 신앙 생활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생각할 필요를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3.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번민은 무엇입니까? 이 번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건은 내가 고민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